



북한의 대내외형세 정면돌파전과 대북 4대 복합전략

하영선
EAI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북핵위기의 역사

- 1차핵위기(1993-1994): 북한 NPT탈퇴선언/유엔제재825/제네바 합의
- 2차핵위기(2002-2005.9): 미 국무부 켈리차관보 방북/베이징 성명
- 3차핵위기(2006-2007.2): 북한 장거리미사일, 1차 핵실험(10.9)/ 유엔제재1695,1718/ 공동성명이행 초기 합의서(2007.2.13)
- 4차핵위기(2009): 은하2호발사/2차 핵실험(5.25)/유엔제재1874
- 5차핵위기(2013): 은하3호발사/3차핵실험(2.12)/유엔제재2087,2094
- 6차핵위기(2016.1): 4차 핵실험(1.6)/유엔제재 2270
- 7차핵위기(2016.9-2017): 5차 핵실험(9.9)/유엔제재 2321,2356
- 8차핵위기(2017.7-12): ICBM 화성-14형 2회 발사/ 6차 핵실험(9.3)/핵무기 연구소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성공“/ ICBM 화성 15형 발사(11.29)/유엔제재 2371,2375,2397
- 9차핵위기(2019.12-) 김정은 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

■ 북한의 대내외형세 정면 돌파전

- 김정은 위원장 2019년 12월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하여’ 보고
-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현단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기본 전략구상을 밝힌 시정연설
- 12월 보고는 대내외 형세의 난관을 특별히 강조.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앞에 봉착한 도전은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흑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 이었다”고 평가
- 금년 투쟁 구호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 보고는 대내외 형세를 분석하면서 제재 압박의 대외적 난관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대내적 난관을 특별히 강조
- 북한 형 3단계 비핵화론의 이행 과정에서 부딪치는 대외적 난관
- 2018년 4월 신전략노선 채택 이후 북한형 3단계 비핵화론 반복 주장 첫 단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로켓트 시험발사 중지와 핵 시험장 폐기의 선제 신뢰 구축 조치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를 유도
- 두 번째 단계, 영변 핵시설 폐쇄 대신,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체제보장을 위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식과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
- 세 번째 단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시각에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핵군축회담을 제안
- 북한은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 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 성과와 복락 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

-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2018년 4월 핵 기반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거쳐 다시 한 번 제2의 병직 노선을 강조
- 대외적 난관의 정면돌파전으로서 지속적 핵무기 개발로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해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난관을 돌파하기 보다는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북한의 핵 억제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제재는 심화되어 체제를 보장하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핵 비확산을 세계질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완전 비핵화 대신 최소 억제력을 유지하는 핵동결을 시도하는 북한의 노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둘째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 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장비력을 총 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현시기 경제부문의 우선 당면과업으로 제시
- ‘적대세력들의 악착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이 현저한 성장 추세를 보였다고 언급하면서도, 당면한 경제 실태에 대해 “국가경제의 발전 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고 지적
- 보고는 북한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를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로 압축. 그러나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 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고 강조
- 따라서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제재 세력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므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제재붕쇄 책동을 총파탄 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경제 전선은 자력갱생만으로 정면 돌파할 수는 없다.
- 중국 경제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의 국민총생산 14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1978년이래 지난 40여년 동안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고도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
-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 수준의 북한경제가 21세기 세계 경제 무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중국을 넘어 선 장기간의 고도 성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한 제재 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대북 4대 복합전략

- 김정은 위원장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오늘의 투쟁에서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그에 순응하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 객관적 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마무리.
- 그러나 핵 억제력과 자력갱생으로 현재의 난관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는 불가능.
- 북한의 진정한 정면 돌파전은 비핵화와 개방경제의 길을 질주하면서도 목숨처럼 소중한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 북한은 지난 시정연설과는 달리 이번 보고에서는 남북관계를 전혀 다루지 않고 국제역량과 국내역량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역량과 독자적으로 움질일 수 없는 한국역량이 북한의 오래된 정면 돌파전에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한국의 진정한 역할은 북한이 오래된 정면돌파전대신 새로운 정면돌파전으로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는 길을 국제역량과 함께 마련해서 북한의 국내역량이 스스로 새 길을 달리도록 해야 한다
 - 가) 제재: 효율적 제재의 지속 이행/ 제재 목적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포기/중장기 제재 로드맵 제시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 나) 억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안보태세 구축/미국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통한

- 확장어지체제의 최대 활용. 한국형 선제타격체제/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대량응징보복체제의 3축체제를 조기 구축
- 다) 포용: 핵화의 비용 극대화와 비핵화의 이익 극대화 필요 / 비현실적 북한형 대신 현실적 북합평화체제구상 마련 /북한 비핵 경제발전 신병진노선의 지구적 경제 지원
- 라) 내부 변환: 북한의 시장화/북한의 정보화 / 3대 진화역량 강화 / 북한의 자발적 비핵 경제발전 신병진노선 추진

■ 발제자: 하영선_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2018-)이며,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 (2008-2016) 이었으며,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한국 측 공동위원장 (2009-2013) 이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하영선 칼럼”을 7년 동안 연재하였으며, 한국외교사 연구 모임, 전파 연구 모임, 정보세계정치 학회, 동아시아 연구원 모임 등을 이끌며 한국 국제정치학의 길을 개척해 왔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보기: 전통과 근대》(2019), 《냉전기 한국사회과학 개념사》(2018), 《한국 사회과학 개념사: 조공에서 정보화까지》(2018),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사행의 국제정치:16-19세기 조천·연행록 분석》(2016), 《1972 한반도와 주변 4강 2014》(201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억제·관여·신뢰의 복합추진》(2014), 《신시대 한일협력 7 대과제》(2013),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2012),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1/2》(2009/2012), 《북합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2012), 《역사 속의 젊은 그들》(2011),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2010), 《한일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북합 네트워크의 구축》(2010)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본 발제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Global NK 핵inSIDE 토크]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